

17세기 후반기이후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와 그 진보성

리 선 희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사상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입니다.

실학사상가들은 <실사구시>, <실용지학>을 주장하면서 뒤떨어진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은 여러가지 경제개혁사상을 제기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43페이지)

17세기 후반기이후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옳바로 분석평가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17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에서는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실지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할것을 목적으로 한 진보적인 학풍 및 학문체계로서 실학이 발생하였다.

실학자들은 《실사구시》, 《실용지학》을 주장하면서 당시 낡고 부패한 제도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들을 제기하였는데 경제개혁사상으로서 화폐류통에 대한 견해는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지난 시기 조선경제사상사부문에서는 실학자들의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조선경제사상사》와 《우리 나라에서 부르조아 경제사상의 발생발전에 대한 연구》, 《조선전사》(10~12권),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견해》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우와 같은 참고서들에서는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독자적인 문제점으로 설정하고 깊이있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론문에서는 17세기 후반기에 실학자들속에서 제기되었던 화폐류통에 대한 견해를 독자적인 문제점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그 내용과 제한성, 진보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당시 환경에 기초하여 분석서술하려고 한다.

2. 본론

2.1.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봉건국가는 농업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수공업과 함께 상업을 《말업》으로 극력 홀시하고 천시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상공업발전을 억제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화폐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화폐류통이 광범하게 진행될수 없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화폐가 발생하여 류통되어왔으며 경제발전에 많은

작용을 하였다. 고려시기에는 현물화폐와 함께 금속화폐가 주조되어 유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의 그릇된 정책으로 하여 화폐유통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부피가 크고 다루기 힘든 현물화폐들인 베나 쌀이 지배적인 교환수단으로 리용되었다.

17세기이후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사회적생산이 늘어나고 분업이 확대발전하는데 따라 부문들호상간에 상품유통을 매개하는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사회적요구로 제기되었다. 이 시기 은화와 같은 청량화폐가 부분적으로 유통되는 한편 명목가치를 가진 금속화폐인 《상평통보》가 처음으로 전국적범위에서 유통되게 된것은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상업발전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실학자들속에서는 화폐유통과 그것이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노는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견해를 제기하게 되었다.

17세기 후반기이후 화폐유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화폐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견해이다.

그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류형원(1622-1673)과 정약용(1762-1836)을 들수 있다.

류형원은 화폐사용과 관련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력대 사실들을 고증한데 기초하여 화폐유통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을 《그럭저럭 지내기를 좋아하고 개혁을 싫어하는 자》들이고 무식쟁이며 《풍월이나 읊으면서 나라를 관리하는 원대한 식견이 없는자》들이라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는 화폐유통을 반대하는 고루하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면서 화폐가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돈을 유통수단으로 쓰는것은 국가의 경비를 넉넉하게 하며 백성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려는것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자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일》(《반계수록》 권8 전제후록고설 하)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화폐유통과 곡식을 생산하는 《이 두가지는 사람들의 생활상기본이다.》(《반계수록》 권8 전제후록고설 하)라고 인정하였다.

류형원의 주장은 《돈을 유통수단》으로 쓰자고 한데서 알수 있는것처럼 현물화폐가 아니라 명목상가치를 가진 화폐로서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화폐유통을 농사와 함께 《생활상기본》으로 중요시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화폐가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그의 이러한 견해는 상업은 《말업》이라는 종래의 중농사상에서 벗어나 상업의 독자적인 분업적의의와 함께 화폐유통이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는것을 시인한 긍정적인 사상이라고 할수 있다.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류형원은 화폐의 적극적인 사용을 주장하였다.

그는 화폐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교역하여 물건의 유무를 상통》하게 하는 《척도로 사용》(《반계수록》 권8 전제후록고설 하)하게 한데서 발생하였으며 쌀, 베, 저화(종이돈)가 일반적등가물의 역할을 담당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 《돈을 화폐로 써야 할것은 명백한》(《반계수록》 권8 전제후록고설 하)것만큼 그것을 적극 유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화폐주조는 국가가 할것이며 질이 나쁜 돈의 주조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화폐유통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극복하며 화폐를 국가의 통일적장악밑에 안전하게 유통시킬데 대한 그의 견해를 알수 있다.

정약용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상품화폐관계발전을 반영하여 화폐가 경제생활에서 노는 기능에 대하여 밝히었다.

그는 화폐가 노는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체로 화폐라는것은 물건에 따라 그의 높고낮음을 평가하는데 사용될수 있으며 있고 없는것을 유통시키는데 사용될수 있다. 참으로 그것은 나라의 큰 보배이며 백성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베, 비단, 콩, 조 등은 크고도 무겁기때문에 불편하고 금, 은, 주옥은 희귀한것이 탈이다. 화폐는 귀족과 천한 사람들사이를 절충할수 있으며 빈곤한자와 부자사이에도 통용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것은 오직 화폐이외는 없다. 다만 그것은 운수에 대단히 편리하나 사기와 거짓을 퍼뜨리는 폐단이 있고 또한 그것은 장사를 더욱 번성하게 하지만 사치와 낭비현상을 더욱 확대시키는 폐단이 있다.》(《여유당전서》 1집 9권 19페이지)

우에서 보는것처럼 정약용이 념두에 둔 화폐는 현물화폐가 아니라 금속화폐로서 화폐가 경제생활에서 매우 큰 기능을 수행하고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과 유통수단의 기능, 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인식하고있었다. 이와 함께 화폐가 일련의 폐단을 가져온다는 관념도 가지고있었다. 이것은 상품화폐관계가 발전은 하고있었으나 아직도 자본주의발전의 미숙성으로 하여 뚜렷하게 자본주의적요구를 제기할수 없었던 당시 사회경제발전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화폐가 경제생활에서 노는 기능에 대하여 긍정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이 봉건사회에 미치게 될 후과를 우려하고있었던것이다.

17세기 후반기이후 화폐유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현물지대로부터 금납지대로로의 이행에 대한 견해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국가의 재정원천은 기본적으로 조세였으며 이와 함께 공물도 그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비록 17세기이후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으로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봉건국가에 의한 조세수탈에서 여전히 현물납부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출 역시 현물에 의한 지출로 진행되었다.

실학자들은 이것을 당시의 상품화폐관계의 장성과 발전을 억제하는 폐단으로 보면서 조세와 공물을 점차적으로 현물지대로부터 금납지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류형원과 정약용을 들수 있다.

류형원은 재정, 유통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현물지대로부터 금납지대로로의 점차적이행을 주장하였으며 이로부터 조세의 절반을 화폐로 수납할것을 제기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가장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전세를 받을 때 3분의 2는 쌀로 받고 나머지 3분의 1은 돈으로 받는것이며 동시에 국가의 경비지출 및 관리들의 록봉지출도 3분의 1은 무조건 돈으로 주며 각 상업망들에서 돈을 사용하게 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왕실로부터 각 관청에서 소요되는 물품은 시장을 통하여 사서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공물을 지방에서 받는 리유가 바로 상업이 발전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제때에 수요되는것을 사서 쓸수 없다는자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종전에 물건이 유통되지 못한것은 값을 주고 사지 않았기때문이다. 값은 후하게 준 이상 사람이 그 리

익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것은 필연적인것으로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해도 할수 없을것이니 혹자의 말이 단연 옳지 않다.》(《반계수록》 권3 전제후록 상)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류형원은 당시 왕실재정의 근거지로 되어있는 내수사폐지안과 왕실이 제멋대로 조절한 왕실재정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자고 주장하였다.

당시 내수사는 왕실직속기관으로서 전국의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있을뿐아니라 진상이라는 명목하에 각 지방의 토산물을 인민들로부터 무제한하게 착취하였다. 그는 내수사를 폐지하고 국왕도 대신 10명분의 록봉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기타 왕실인원들에게도 신분에 해당하는 록봉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계수록》 권3 전제후록 상)

류형원의 이와 같은 견해는 17세기이후 상업발전의 조건을 조성하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을 추동하자는 견해였다고 할수 있다.

정약용도 현물지대를 금납지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화폐사용을 조세납부에 적용하자고 제기하면서 금납지대가 현물지대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현물징수가 현금징수보다 못하니 전부터 현물로 징수하던 것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여유당전서》 5집 21권 23페이지)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금납지대의 유리성을 《아전을 억누르고 백성을 돕는》 견지에서 생각하였다. 이것은 당시 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의 직접적담당자였던 아전들이 현물수탈을 공간으로 갖은 룡간과 협잡행위를 일삼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나날이罄막되고있던 사실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견해는 당시 현물납부를 좋은 기화로 하여 갖은 방법으로 수탈을 감행한 아전들의 중간착취를 제거하는데서뿐만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상품화폐경제발전을 촉진시키자는 견해였다고 할수 있다.

17세기 후반기이후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화폐를 통한 가격조절에 대한 견해이다.

그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박지원(1737-1805)을 들수 있다.

박지원은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하고 먹고 입을것을 풍족하게 하여야 한다는 《리용후생》의 사상에 기초하여 화폐류통에 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박지원은 《국가의 중요한 제책이 오로지 화폐에 놓여있는것》만큼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민간에 돈이 마르는것》은 《재정정책이 그 도리를 얻지 못한 까닭이다.》(《연암집》 권2 서, 하김우상리소서)라고 비판하면서 화폐류통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화폐가 경제생활에서 노는 기능에 대하여 긍정하면서 국가는 그 기능을 옹계 인식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가격정책을 옹계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화폐의 가치와 가격과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화폐가 중해지면 물건값은 가벼워지고 화폐가 가벼워지면 물건값이 중해진다. 물건값이 중해지면 신하와 나라가 동시에 병들고 물건값이 가벼워지면 농민과 상인이 다같이 손상을 입는다.》(《연암집》 권2 서, 하김우상리소서)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는 국가는 마땅히 화폐의 류통을 원활히 하되 화폐가 《너무 귀하거나 너무 흔한 일이 없고》 물가가 《몹시 비싸거나 몹시 싼 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연암집》 권2 서, 하김우상리소서)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박지원은 엽전주조에서의 문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낡은 돈과 새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단위를 달리하자는 견해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화폐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폐단을 막고 국가의 통일적관할 하에 화폐를 적극 유통시키면서도 그 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견해였다고 할수 있다.

17세기 후반기이후 화폐유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은화와 금화의 대외류출을 방지할데 대한 견해이다.

그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박지원과 정약용을 들수 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면서 화폐유통이 장성하고있었지만 은은 국내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청나라로 많이 류출되어 물건교역에 리용되었다.

은화는 임진조국전쟁이 한창이던 1593년에 봉건정부에서 전시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주의 중강에 국경무역장을 설치하고 알곡값이 낮은 룡동지방에서 식량을 대량적으로 수입하던 때부터 화폐로 류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은화는 국내에서 주로 개별적상인들이나 부유한자들, 관청들의 고리대자본으로 축적됨으로써 상업자본으로서의 기능은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 특히 청나라와의 대외무역에서 일반적지불수단과 구매수단으로 리용되었다.

1742년의 형편만 보아도 당시 국내에서 류통되고있었던 은화의 총량은 전국적으로 100만량에 불과하였으며 그가운데서 매해 베이징으로 흘러들어가는 은만 하여도 37만~38만량이나 되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들에 퇴장되어있는 은의 총량은 모두 30만~40만량이나 되었고 평양감영에 있는것만도 30만량이나 되었다.((조선상업사》원시—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주체101(2012)년 293페이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립장을 취하고있던 박지원은 《은화는 화폐로서 가장 귀한것ियो. 천하에서 다 함께 보배로 여기는것이다. 우리 나라 풍속은 쇠돈만 돈으로 쓸줄 알고 은돈은 돈으로 쓸줄 몰라서 은이 화폐편에 들어갈 대신에 물건편에 들어가고있다. 은은 중국시장으로 가져가지 않고서는 수용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된다.》(《연암집》권2 서, 하김우상리소서)라고 하면서 은의 다른 나라에로의 류출을 막고 국내에서 화폐로서 광범히 류통시킬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은의 국외수출을 금지하는것과 함께 국내의 은을 전부 국가에 바쳐 5량, 10량 짜리로 주조하여 10분의 1세만 받고 본인에게 도로 주어 자유로이 류통시키자고 제기하였다. 동시에 그는 은을 가지고 중국의 질이 낮은 오래된 금속화폐인 당전을 수입하여 류통시키자는 통치자들의 정책을 줄렬한 정책이라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박지원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을 반영한것으로서 국내상업을 보호하자는 혁신적이며 애국적인 립장으로부터 나온 견해라고 할수 있다.

정약용도 금, 은화폐의 주조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국내에서 광범히 류통시키며 금, 은의 중국에로의 류출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나라에서 금과 은으로 화폐를 주조하고 각기 그에 해당하는 가치대로 사용하게 하면 큰 상인들과 먼거리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반드시 서로 다루어 금전, 은전을 얻으려고 할것이다. 그것은 수송하는데 힘들지 않기때문이다.》(《여유당전서》1집 9권 29페이지)라고 하였다.

정약용이 주장한 금화와 은화를 류통시킬데 대한 견해는 명백히 상업발전을 지향한

것이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금, 은이 외국에 류출되고 동시에 당시 국제무역상인들에 의하여 사치품이 대량적으로 수입되는것을 반대하던 나머지 적극적인 대외무역진출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는 봉건사회의 력사적환경과 량반지배계급의 립장으로부터 제기되였던것만큼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실학자들은 화폐류통이 사람들의 경제생활과 국가운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옛 사실을 리상화하거나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실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대책적방안들을 제기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반적인 견해만을 제기하였다.

실학자들은 고대시기를 《어진 정치》가 실시된 《표본》으로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당시의 부패한 제도를 개혁할데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는데 화폐류통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옛날에 어진 임금들이 구슬과 천 등속을 만들어내어 가벼운것을 가지고 무거운 물건과 서로 융통하게 하며 무를 가지고 유를 융통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고대시기의 류통관계를 거울로 내세운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그리고 실학자들이 제기한 현물지대를 금납지대로 이행할데 대한 견해를 보더라도 현물지대에 비한 금납지대의 유리한 점만을 강조하고 그 명목가치평가와 그 류통에서의 국가의 통일적인 조절자적기능 등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다.

2.2.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의 진보성

17세기 후반기이후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일정하게 진보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의 진보성은 우선 실학자들이 화폐류통을 가로막고 사회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당시의 불합리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것이다.

17세기이후 사회적분업이 확대되고 상품생산과 교환이 발전하면서 화폐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더욱더 높아졌다.

당시 적지 않은 봉건관료들속에서도 《나라를 유족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화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봉건국가는 부족되는 국가재정을 메꾸기 위하여 금속화폐를 주조하여 류통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던 보수적이며 완고한 봉건통치배들은 화폐류통이 《나라의 기풍을 흐리게》하며 사람들속에서 본업 즉 농사를 짓지 않고 돈만 아는 현상만 초래한다고 하면서 반대해나섰다. 화폐류통의 자유로운 류통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것만을 고집하면서 음풍영월하는 보수적인 봉건통치배들의 화폐류통에 대한 거부적인 립장으로 하여 당시 사회경제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다.

실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화폐류통을 반대하는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해나섰다.

그들은 날로 장성하고있던 상품화폐관계발전의 현실을 외면하고 화폐류통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봉건통치배들을 무식쟁이로, 《나라를 관리하는 원대한 식견이 없는자》들로 타매하고나서 《화폐류통이 나라의 경비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려

는것으로서》나라를 통치하는자들이라면 응당 그에 관심을 돌리고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실학자들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진주를 캐는 일군이 없고 시장에서 산 호같은 보화도 값이 없으며 금이나 은을 가지고 상점에 들어갈지라도 떡조차 살수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풍속이 참말로 검박을 숭상하여 그렇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였다. (《북학의》시정)

실학자들의 이 말에는 당시 화폐류통이 가지는 중요성을 외면하면서 낡고 고루한 생활만을 고집하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화폐의 자유로운 류통과 상업의 발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있었다.

실학자들은 이러한 비판적립장에 기초하여 화폐류통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봉건통치배들에게 화폐의 유익성을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것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 지 못하고 낡고 뒤떨어진 관념과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려는 보수적인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호된 타격으로 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화폐류통을 반대하는 현상에 대한 실학자들의 비판적견해는 사회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서 진보적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의 진보성은 또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국내상업을 안정시킬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많이 제기한것이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근 7년간에 걸쳐 벌어진 임진조국전쟁과 후금과 청나라의 침략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반침략투쟁을 겪으면서 나라의 재정은 심히 고갈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여 그 물질적기초를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실학자들의 화폐류통에 대한 견해는 바로 이러한 요구로부터 제안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지난 시기 농업만을 중시하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화폐류통을 농업과 함께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상업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분야라는것을 주장한것으로서 당시 발전하는 상품화폐관계의 요구와 국가재정의 궁핍을 해소하려는 지향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실학자들의 화폐류통에 대한 견해가 바로 국가재정의 궁핍을 해소하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것만큼 그들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고 류통시키며 화폐를 통한 가격조절을 잘할데 대한 견해도 제기하였다.

화폐류통이 나라의 경제운영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지나치게 높이 보던 나머지 그들은 지어 《국가의 중요한 계책이 오로지 화폐에 놓여있다.》고까지 강조하였다.

물론 실학자들이 말하는 국가는 봉건지배계급을 위한 국가였던것만큼 실학자들의 주장은 봉건국가가 직면한 재정적위기를 극복하고 봉건통치제도를 유지공고화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상업과 화폐류통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것으로서 진보적이였다고 할수 있다. 특히 실학자들의 견해에서 은화와 금화를 다른 나라로 류출시키지 말고 국내에서 광범히 류통시키자는 견해는 국내상업을 보호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는것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견해였다.

화폐류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의 진보성은 또한 당시 우리 나라 상품화폐관계발전을 추동한것이다.

화폐유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당시 장성하고있던 상품화폐관계를 발전시키자는것이였다.

실학자들속에서 제기된 화폐의 유익성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문제, 화폐주조와 국가에 의한 통일적인 가격조절문제, 은화와 금화가 다른 나라에 류출되는것을 방지할데 대한 문제, 화폐의 액면가격평가문제, 위조화폐를 금지시킬데 대한 문제, 현물지대를 금납지대로 이행할데 대한 문제 등은 상품화폐관계발전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되며 응당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로부터 실학자들은 화폐를 장려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화폐유통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이것은 당시 상품화폐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더우기 실학자들이 제기한 현물지대를 금납지대로 이행할데 대한 견해는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긍정적인의의를 가지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금납지대 즉 화폐지대는 봉건시대 마지막지대형태로서 그것은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한 조건에서 발생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18세기이후 화폐가 광범히 류통되는데 따라 전세, 공물, 군역 등 봉건국가의 여러 분야에서 금납화가 다그쳐졌을뿐아니라 봉건지주들의 지대착취분야에서도 현물지대대신 현금을 수탈하는 금납지대가 새롭게 발전하였다.

금납지대의 발생발전은 계급분화와 자연경제의 붕괴과정을 가져왔으며 상품화폐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실학자들은 현금지대에 비한 금납지대의 유익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왕실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생활의 각 분야에서 금납지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발생발전하고있던 금납지대의 확대를 크게 추동하였다고 할수 있다.

물론 화폐유통에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작용하는것만은 사실이지만 17세기이후부터 실학자들속에서 제기된 현물지대를 금납지대로 이행할데 대한 견해는 우리 나라에서의 금납지대의 발생발전을 다그치는데서 많은 작용을 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실학자들의 화폐유통에 대한 견해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상품화폐관계를 촉진시키는데서 일정한 진보성을 가지고있었다고 할수 있다.

3. 결론

조선봉건왕조후반기 실학자들속에서 제기되였던 화폐유통에 대한 견해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상품화폐관계발전을 반영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주장한 진보적인 견해로서 우리 나라 경제사상사를 보다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17세기 후반기이후 실학자들의 경제사상의 진보성을 옳바로 인식하고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사상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할것이다.